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1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목차

포커스: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다 / 이창훈(KBS 앵커, 시각장애 1급)
장애인계 뉴스
1. 신한카드, 한시련과 함께 세계최초로 '점자카드' 출시
2. 한시련, 새내기 시각장애대학생에게 학습보조기기 전달해
3. 인권위, "방송사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4. 민주통합당 의원들, 체험·공감·이해의 정치 위해 장애체험에 나서
5. 법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6. 창원시, 도로명주소 점자로 입력한 '점자 주민등록증' 교부
기획: 장애인 고용문제,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독자마당: 24년간의 선교사역을 돌아보다 / 윤윤호(알곡시각장애인선교회 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6월 15일~6월 30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9)

~~~~~~~~~~~~~~~~~~~~~~~~~

포커스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다

이창훈(KBS 앵커, 시각장애 1급)

절기상 이제 막 하지를 지났을 뿐인데 언론에서는 불볕더위라고 말할 정도로 여름의 절정을 미리 맛보고 있는듯하다. 지난해 여름은 내게 있어 또한 방송에 대한 꿈을 간직했던 장애인들에 있어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계절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무려 500여명. 도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내게 합격이라는 영광과 함께 동시에 방송인이 되기

위한 맹훈련이 시작됐던 지난해 여름이었다.

합격 후 3개월간 보도국 각 부서와 아나운서실에서의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 등 빠듯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을 통해 방송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사전교육과 더불어 실제 방송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면을 통해 현장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을 나누고자 한다.

2011년 11월 8일: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첫 방송은 별다른 사건 없이 잘 지나갔다. 방송 이튿날, 이상하게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긴장이 되었고, 뉴스 내용 파악보다는 틀리지 않고 읽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나를 휘감았다. 스튜디오에 앉아서도 계속 심호흡을 했으나 웬일인지 평소와 다른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뉴스에 들어가서도 불안하긴 했으나 어렵사리 버텨가던 중 마지막 뉴스를 읽어가면서 발음이 엉킨 이후 앵커가 아닌 한국어를 처음 구사하는 사람의 뉴스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도한 긴장 탓에 정상적인 호흡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빠르게 뱉어내다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의 경험 이후 천천히 또박또박 뉴스를 진행하는 분들의 뉴스를 반복해서 듣고, 읽는 연습보다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사와 내용 숙지에 더욱 신경을 기울였다. 얼마 후 '처음엔 틀릴까 보는 사람이 긴장됐었는데, 지금은 뉴스 내용이 들어온다'는 지인의 말에,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들이 시청자들의 좋은 평가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쁨이 컸다.

2011년 12월 19일: 이런 게 뉴스구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방송국에 출근해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오가 됐고 '뉴스12' 정규방송이 진행되던 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속보가 뜨면서 삽시간에 정규 뉴스에서 특보 형태로 전환됐다.

결국 내가 준비 중이던 생활뉴스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것. 방송을 못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뉴스특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기에 집중하면서 지켜봤다.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내용들, 정부 및 외신들의 반응 등을 빠르게 보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하게 소식을 전하는 앵커. 뉴스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앵커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시청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2012년 6월 1일: 변화에 대응하다.

방송이 6개월을 넘어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있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뉴스를 위해 스튜디오로 향하면서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가 진행하는 생활뉴스는 5분 동안 5개 정도의 리포트와 단신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이다.

시간이 되어 단신과 리포트 기사에 대한 앵커 멘트를 한 뒤 기자 리포트가 나가던 중, 바깥에서 들리는 목소리. "4번째 기사 아웃"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뉴스에 들어가서 기사가 빠진 적은 없던 터였다.

지난 3개월간 진행했던 실무 교육 당시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했을 뿐 실전에서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3번째 뉴스 후 바로 마지막 뉴스를 보도하고 뉴스를 마쳤다.

사실 처음 지시를 받았을 땐 조금 당황되는 마음도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은 이미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이다 보니, 방송에 들어가기 전 평소에 비해 뉴스가 조금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가 빠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돌발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감각도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이제 7개월 갓 넘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새내기 방송인이다. 요즘도 뉴스 중 말이 엉키고 표정이나 자세에서 불안한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는 방송인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장애인계 뉴스

1. 신한카드, 한시련과 함께 세계최초로 '점자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이재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와 함께 세계 최초로 카드면에 상품명, 카드번호 등을 점자로 입력한 점자신용카드(이하 신한 점자카드)를 출시하고, 방송인 이동우 씨에게 1호 카드를 전달했다.

신한카드는 점자카드 출시에 앞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했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카드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57.9%)’, ‘지갑에 들어 있는 각종 카드 중 어느 것이 신용카드인지 모르겠다(42.1%)’등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카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카드 면에 상품명, 카드 번호, 유효 기간, CVC코드 등을 점자로 입력해 카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안내장도 점자와 음성 안내본 두 종류로 제작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음성안내 파일로 제공하는 등 카드사용 전반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지난 6월 28일 방송인 이동우 씨를 신한카드 본사로 초청해 점자카드 1호를 전달했다. 이동우 씨는 개그맨으로 활동하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한 점자카드는 러브 신용/체크카드, 하이포인트 신용/체크카드 등 4종류로 발급되며, 기존의 러브, 하이포인트카드와 동일한 할인·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점자카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카드, 안내장 등의 점자 위치, 내용 확인 등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한카드는 점자카드 출시를 계기로 시각 장애인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한시련, 새내기 시각장애대학생에게 학습보조기기 전달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6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새내기 시각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기 기증식'을 개최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시각장애 새내기들을 응원하고 학습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KDB대우증권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5천 5백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시련은 이번 보급사업을 위해 2012년 정규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총 1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이중 6명의 학생에게 점자정보단말기를, 10명의 학생에게 최신형 노트북과 스크린리더(시각장애인용 화면읽기 프로그램)를 전달했다.

지난해에 점자정보단말기만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원품목에 노트북과 스크린 리더가 추가되어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고 강의를 듣는 데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KDB대우증권의 기부금은 기업의 사회공헌예산이 아닌 KDB대우증권 임직원들이 월급기부 프로그램인 한사랑나눔캠페인을 통해 월급의 일정액을 모금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의미를 가진다.

최동익 한시련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DB대우증권에 감사드린다. 보조기기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사회에서 지원한 만큼 학습하는 데 있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시각장애 학생 여러분의 노력으로 채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철 KDB대우증권 사회공헌단 사무국장은 "이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3년이 됐다. 대우증권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모금액이 많아져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10년, 20년 후에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현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사업본부장은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정보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각장애학교 졸업생 중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학생은 총 51명이며, 대학진학률은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권위, “방송사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방송사는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2010년 9월 시각장애인 이모 씨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의 조사결과 각 방송사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각각 53.9%, 36.4%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

입시 음성정보 입력도움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방송사 웹사이트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제약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방송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4. 민주통합당 의원들, 체험·공감·이해의 정치 위해 장애체험에 나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6월 28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체험·공감·이해의 정치'의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체험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장애인위원회, 국회 장애인복지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한명숙 전 대표 등 3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두개의 조로 나뉘어 국회 앞뜰을 출발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역을 거쳐 의원회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교대로 안대와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체험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지체장애체험을 했다.

장애체험을 마친 뒤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은 "(지체장애 체험에서) 보도 경계석이 3cm로 되어 있지만 보도로 진입하기가 힘들었다", "(시각장애 체험에서) 신호등 음성지원이 안 되어 횡단보도 건너는 것이 두려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민주통합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인 최동익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소외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정당"이라며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의원들이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바람으로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5. 법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법원도서관(관장 김창석)은 지난 6월 28일 시각장애인용 법고을LX 2012년 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법고을LX는 국내외의 각종 판례, 대법원 규칙, 논문 등을 수록한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제작된 2012년판은 검색결과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합성기능(TTS)이 탑재되어 시각장애인의 법률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음성합성기능(TTS)과 더불어 판례·문헌·규칙 등의 통합검색기능 추가, 업데이트 속도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이 향상되었다.

법원도서관은 TTS 버전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영 판사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학생 3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용 법고을LX 제작과 더불어 6월 14일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법해설서로 널리 쓰이는 '민법주해 시리즈'를 시각장애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원도서관은 텍스트 파일로 변환된 시각장애인용 민법주해 파일을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씨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법원도서관과 전국 법원 열람실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법률정보 접근성 강화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 창원시, 도로명주소 점자로 입력한 '점자 주민등록증' 교부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지난 6월 28일 시각장애인 불편해소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점자 주민등록증’을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교부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명 주소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점자주소 변경신청을 따로 받아 점자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것이다.

시는 2012년 4월 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47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읍면동별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은 결과, 388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6월 28일 등기우송 및 방문을 통해 교부를 완료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자 주민등록증은 얇은 투명 점자스티커를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철현 창원시 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2차로 발급대상자를 접수한다”면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장애인 고용문제,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1,994곳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곳, 공공기관 69곳 등 총 10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발표했으나 지난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차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2011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의 약 60%)에 미달하는 기업을,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이며, 공기업 3%,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3%이다.

명단에 발표된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우선 민간기업은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1.8%,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1.78%, 500명~999명인 기업은 2.29%, 300명~499명인 곳은 2.38%, 100명~299명인 기업은 2.63%로 나타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기업은 총 112곳으로, 부영(0.61%), 하이닉스 (0.75%), 현대(0.81%), 지에스(0.89%), 대우건설(0.89%), 현대백화점(0.89%), 엘지(0.99%), 케이씨씨(1.01%), 대림(1.04%), 신세계(1.06%) 등이 상위 10곳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총 185개소로 상위 10곳은 서울반도체(0%), 다음커뮤니케이션(0%), 지앤지라인(0.07%), 풀무원식품 (0.09%), 아이비커리어 (0.09%), 신영와코루(0.09%), 이랜드파크(0.1%), 키스템프(0.1%), 삼일회계법인(0.1%), 인터비즈시스템(0.11%) 등이다.

근로자수 500명~999명인 기업은 총 263개소로 이중 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0%였으며, 근로자수 300명~499명인 곳은 총 304개소로 47곳이 장애인 고용률 0%, 근로자수 100명~299명인 곳의 경우 총 1242개소가 명단에 올라있으며 891곳이 장애인고용률이 0%였다.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일 3,068개소의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대기업 임원 간담회, 고용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했으며, 그 결과 358개 기업에서 장애인 876명을 신규 채용했고, 464개 기업에서 2,218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13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은 앞서 말한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이행한 기업을 제외한 1,994개소로, 작년에 비해 112개소가 줄긴 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민간기업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가 명단에 올랐으며, 특히 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42개소와 공공기관 104개소 등 총 146개소에 대해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왔으며, 이를 이행하여 27개소에서 장애인 298명을 신규 채용했고, 16개소에서 장애인 10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44개소는 이번 발표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은 2.52%(의무고용률: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5%(의무고용률: 2.3%), 공기업 3.05%(의무고용률: 3%), 준정부기관 3.55%(의무고용률: 3%), 기타공공기관 2.22%(의무고용률: 2.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은 27개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8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곳 상위 10곳을 보며 공무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1%), 부산광역시교육청(1.23%), 충청남도교육청(1.24%), 서울특별시교육청(1.29%), 인천광역시교육청(1.3%), 국회(1.37%), 강원도교육청(1.45%), 대구광역시교육청(1.48%), 충청북도교육청(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58%)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외교통상부(0%), 기상청(0%), 특허청(0%), 기획재정부(0%), 인천광역시교육청(0.26%), 충청북도교육청(0.28%), 대구광역시교육청(0.29%), 대전광역시교육청(0.3%), 경기도교육청(0.36%), 전라북도교육청(0.38%)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총 69곳이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공기업이 3곳, 준정부기관이 6곳, 기타 공공기관이 60곳이었다.

공기업 3곳은 한국관광공사(1.26%), 한국석유공사(2.02%), 인천국제공항공사(2.46%)였으며, 준정부기관 6곳은 한국광해관리공단(0.9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77%), 한국장학재단(2.03%), 에너지관리공단(2.62%), 한국전기안전공사(2.71%), 한국환경공단(2.9%)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 60곳 중 6곳(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명동정동극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창업진흥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았다.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크게 사정이 나은 편도 아니었다. 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곳 모두 명단에 포함된 것은 매우 씁쓸한 결과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늘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러한 제재조치마저 없는 형편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좀 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처럼 정부가 용감함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

독자마당

24년간의 선교사역을 돌아보다

윤윤호(알곡시각장애인선교회 대표)

본인은 48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 방면에 대한 사명정신은 청년시절부터 불타고 있었으나 그 시절 직업도 없는 나로서는 가정에 얽매여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자녀 사남매를 다 키워낸 후 늦은 나이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자택 방 한 칸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규모를 차츰 확장시켜왔다.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처럼 24
~~~~~~~~~~~~~~~~~

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게 흘러가 버렸고 종착역에 다다를 때도 머지않았으니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싶은 생각만 들고 24년의 세월이 하루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초기에는 나의 큰 딸이 사무 일을 도맡아 주었는데 제대로 일을 벌이자면 사무실도 마련해야했고 운영비도 확보되어야 했기에 수백 개의 교회 전도회로 보조 요청서를 띄웠더니 이곳저곳에서 찾아와 우리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창립 십개월 만에 도로가의 작은 점포를 세 얻어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했고 그때부터 여러 시각장애인들에게 물품 구제, 대사 찬조, 친교 모임 등 각 방면으로 일을 펼쳐갔다.

이렇게 선교활동을 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자매의 집을 방문했는데 선풍기조차 없이 지내는걸 보고 “이런 더위를 어떻게 견디세요?”하고 물으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의 겸손한 말에 감동을 받고 이튿날 당장 선풍기 한대를 사서 갖다 주었다.

한번은 경북 청도에서 세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사는 권모 씨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다. 마을에서 떨어진 움막에서 불편하게 사는 걸 보고 “생활에 고생이 많겠습니다.”했더니 웃음을 지으며 “글쎄요, 돈이 태산같이 많아도 쓸 자리에 바르게 못 쓰는 그들보다 내가 오히려 행복합니다.”라는 그의 말 한 마디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였다.

누가 나더러 선교사역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한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신자의 의무요 도리이기에 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일함이 마땅하고, 둘째는 본인이 한때 청년시절에 몸 부칠 곳조차 없어 수년간이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나를 데려다 재워주고 밥을 주고 옷을 준 사람들이 모두 교인들이었기에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약한 이곳 선교회에서 점자를 배운 중도실명자도 두세 명 되고, 학교에 알선해준 시각장애인들도 여러명 되며 대표적인 물품구제로 음성 손목시계와 탁상시계, 식찬, 문구용 파일과 다이어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물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에 가도 본체만체 친절히 안 대해주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몇 주일인가 가보다가 그만 두었다”는 이도 있고 “예수만 믿으면 살 길이 트이겠나”하는 이도 있고 “실은 나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 마음에 없는 역리업을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이도 있었다.

십수 년간 무등록으로 선교회를 운영해오다가 2012년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경남지부로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갈수록 후원자가 줄고 선교자 나이도 칠십이 넘었기에 법인체는 사임하고 다시금 ‘알곡 시각장애인 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종전처럼 무등록으로 수년 간 더 운영하다가 마치려고 한다.

지금까지 24년이란 세월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몇몇 시각장애인의 후원도 받은바 있는데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와는 시대가 점점 달라짐을 느끼곤 한다. 오래전에는 각종 기독교 신앙서적을 점자로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면 관심 깊게 읽어보고 보잘것없는 물건 한 가지라도 주면 고마워 어쩔 줄 몰라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도 드문 것 같고, 과거에는 후원 요청 공문을 수백 통씩 띄우면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전연 그런 일이 드무니 말이다. 한마디로 무관심, 무감동, 무기력이라는 삼무의 정신병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하게 퍼져 일하기 매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글을 맺는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6월 15일~6월 30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6월 중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토요일)에는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장영달 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시련 충북지부장 및 지회장과의 오찬, 충북장애인단체총연맹 방문, 대전시각장애인지도자들과의 만찬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다음 날인 17일(일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대선출마선언식에 참여했다.

18일(월요일)에는 MBC 김재철 사장 퇴진촉구 기자회견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이어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19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한 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 회의를 주재했으며, 같은 날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특별강연회에도 참석했다.

20일(수요일)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및 복지행정지원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21일(목요일)에는 사회복지간담회 주재,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 참석 등의 일정에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최한 전국장애인단체 실무자직무교육과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22일(금요일)에는 새 길을 여는 약속「초록불」출범식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주재했다.

23일(토요일)에는 목포·전남지역 장애인 지도자들에 이어 한시련 경기지역 장애인 지도자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25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면담을 가졌으며, 국립암센터에서 장애인보건의료 정책방향에 관해 강의를 했다.

26일(화요일)에는 윤호중 의원 및 한시련 구리지회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나누었으며,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 대선후보경선 출마선언식과 한시련 직원연수에 참석했다.

27일(수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28일(목요일)에는 한명숙 의원과 면담을 가진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애체험 행사를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29일(금요일)에는 한시련 및 대한안마사협회가 주관한 '최동익 의원 국회등원환영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차 한시련 정기이사회를 주재했으며, '2012년 새내기 시각장애 대학생 학습보조기기 무상보급 기증식'에 이어 숭실대 동문 당선 축하연에 참석했다. 30일(토요일)에는 다산복지재단 직원연수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9)

1) '나지막하다'와 '나즈막하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나지막하다
-해설: ‘나지막한 건물’, ‘나지막한 목소리’라고 할 때는 ‘나지막하다’가 옳다. ‘나즈막하다’로 쓰는 일이 많지만 ‘나지막하다’가 표준어이다. 반대말은 ‘높지막하다’이다.

2) ‘거둬들이다’와 ‘걷어들이다’ 중 맞는 말은?
-답: 거둬들이다
-해설: ‘거둬들이다’는 ‘거두어들이다’의 줄임말이다. ‘거둬들이다’와 ‘걷어들이다’처럼 소리와 뜻이 비슷한 말이 혼동되어 쓰일 경우 하나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슷한 예로 ‘부서지다(맞는 말)/ 부숴지다(틀린 말)’, ‘부서뜨리다(맞는 말)/ 부숴뜨리다(틀린 말)’와 같은 예가 있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